

‘족보’와 ‘창씨개명’

-김달수의 「族譜」와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族譜」를
중심으로-

박제홍* · 김순전**

(*e-mail : jhpark1288@naver.com)

(**e-mail : sjkim77@chonnam.ac.kr)

目次

1. 서론
 2. 김달수와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문학세계
 - 2.1 김달수의 문학과 삶
 - 2.2 가지야마의 문학과 삶
 - 2.3 「족보」의 상징성과 개작
 3. 양 작품의 차이와 한계
 - 3.1 조선작가와 일본작가의 인식 차이
 - 3.2 양 작가의 공통성(개인의 한계)
 4. 창씨개명의 양상
 5. 결론
-

1. 서론

최근 정부의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요구¹⁾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역사인식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잘 표출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명한 한국 근현대 역사가인 부르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압력에 대해서 “정부가 역사교과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BK21 Post-Doc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2002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제도에 의해 발간된 금성출판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2008년 10월 30일 교육과학 기술부는 수정권고를 명령하였다.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가 나서서 역사를 호도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잃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국정부는 ‘모래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처럼 불편한 과거사에 대해 무작정 귀를 막으려 하고 있고, 이는 ‘국가적 자긍심’을 명분으로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 우익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²⁾고 꼬집고 있다. 즉 과거 일제가 조선의 말과 글에 이어서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정책을 조선인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 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이 아직도 일본인 속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현 총리인 아소 다로(麻生太郎)는 自民党的의 政調会長 신분이었던 2003년 5월 31일 도쿄대학 강연에서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성을 달라고 한 것이 시작이다.” “한글은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가르친 것이며 의무교육 제도도 일본이 시작했다. 옳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³⁾라고 강변한바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인식이 현재에도 한·일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창씨개명이란 정책은 일제가 조선에서 조선인에게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우익들은 강제가 아니고 조선인이 원해서, 조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선인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강제가 아니라 하급기관들의 자발적인 독려가 마치 강제성을 띤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한·일간의 ‘창씨개명’에 대한 다른 역사인식은 앞으로도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족보’라는 똑같은 제목과 테마를 가지고 창씨개명에 대해 소설로 형상한 두 작품, 즉 일제말기 쓰여진 김달수의 「족보」와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태어나 16살까지 조선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이하 : 가지야마라 함)의 「족보」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비록 픽션이지만 소설 속에서 ‘창씨개명’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⁴⁾

김달수 「족보」의 선행연구로 정대성(2000)은 「8.15 전후 재일조선인의 생활상과 민족의식」을 통해 해방 전후의 단편집의 여러 유형들을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박정이(2004)는 「김달수의 3개 ‘족보’와 관련해서-그 이동을 중심으로-」

2) 2008. 11. 25일 <한겨레> 인터뷰

3) 自民党的의 麻生太郎政調会長は31日、東京都内で講演し、日韓併合時代に日本政府が朝鮮の人々を日本名に変えさせた「創氏改名」について、「朝鮮の人たちが「名字をくれ」と言ったのがそもその始まりだ」などと語った。(2003. 6. 1 <朝日新聞>)

4) 김달수의 「족보」는 1941년 일본(日本)대학 문예잡지 ‘예술과’에 발표한 것을 2001년 ‘綠蔭書房’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가지야마의 「족보」는 1952년 「広島文学」에 初出 된 후, 1961년 ‘文学界’에 가필해서 發表된 것을 1963년 ‘文芸春秋新社’에서 발행한 「이조간행」의 단행본 안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에서 1941년 「족보」, 1948년 「족보」, 1978년 「낙조」의 이동(異同)을 중심으로 김달수에 있어서 족보와 조선인, 민족이라는 의미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김환기(2008)는 「김달수의 초창기 문학연구」에서 김달수의 초창기문학은 일본어를 통한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외부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지야마 「족보」의 선행연구로는 남부진의 「문학의 식민주의」⁵⁾가 있다. 여기에서 남부진은 「족보」에 등장하는 창씨개명과 실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것은 단지 픽션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시키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원희는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와 조선」⁶⁾에서 「족보」나 「이조잔형」을 통하여 창씨개명과 3.1독립운동을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 알리고, 나아가 조선의 문화와 풍물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양 작품의 발표연대가 시공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창씨개명’이라는 공통된 테마와 1940년대 조선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일 조선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창씨개명’과 ‘족보’가 조선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일본인 작가의 시선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 일제말 일제의 ‘창씨개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선인에 있어서 족보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고찰 해보고자 한다.

2. 김달수와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문학세계

2.1 김달수의 문학과 삶

김달수는 1919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아버지 김병규와 어머니 손복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고향에 김달수와 할머니를 남겨두고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공사판의 막노동을 하다가 김달수 나이 10살 때인 1928년 사망했다. 부친 사망 후 그는 1930년(12살) 마침내 일본으로 건너가 가마쿠라(鎌倉)의 에바라(荏原)에서 녀마주의를 하면서 1931년 오이마치(大井町)의 야마나카(山中) 심상소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였다. 이곳은 주로 조선아동에게 속성으로 일본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그는 학업 진행속도가 빨라 1년에 2학년씩 진급하여 다음해 1932년 에바라 소학교 4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일본어를 읽을 수 있게 되자

5) 남부진(2006), 「文学の植民地主義」, 世界思想社, p.194

6) 이원희(2007),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와 조선」, 일본어문학회 제38집 pp.405~422

기빠서 다쓰카와분코(立川文庫)의 「少年俱樂部」를 탐독했다. 그의 학교성적은 항상 상위였으나 조선아동에 대한 차별의 반발로 김파라는 서클을 만들어 저항했기에 그의 품행점수는 매우 나빴다.

그는 1935년(17살) 요코스카(橫須賀)로 이주하여 녕마주이를 하면서 야간 중학교에 2개월 정도 다녔다. 그때부터 그는 문학에 관심이 생겨 와세다(早稻田) 대학의 「文學講義錄」을 읽거나, 녕마주의 일을 하면서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일본과 조선문학전집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는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 문학에 심취하였고 도스도에프스키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견습 공과 막노동을 하면서 간다(神田)의 세이소쿠(正則)영어학교에 잠시 다녔다. 그는 1939년(21살) 일본대학 예술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문학수업 중에 이토 세이(伊藤整)의 『율리시즈』 강의에 가장 흥미를 가졌다. 1940년 8월 대학 문예 잡지 「예술과」에 그의 처녀작 「위치(位置)」를 발표했다. 1941년 조기졸업 할 때까지 예술과에서 오자와 다쓰오(大沢達雄)라는 필명으로 「아저씨(やぢ)」(40. 10), 「기차도시락(汽車弁)」(41. 3), 「족보(族譜)」(41. 11), 「잡초(雜草)」(42. 7)와, 가네미쓰 준(金光淳)⁷⁾이란 필명으로 「쓰레기(塵)」(42. 3) 등을 발표했다. 그는 졸업 후 패전까지 가나가와(神奈川) 신문기자로 근무하는 도중에 1943년 5월부터 1년간 조선총독부 기관지 일본어신문인 <京城日報> 기자로 경성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후, 장편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를 쓰기 시작하면서 조선인의 回覽 동인지 「鷄林」을 만들어 공습경보하에도 합평회를 열고 활발한 담론을 펼치며 활동하였다. 1945년 해방으로 제일동포들이 「在日朝鮮人連盟」을 결성하자 그는 일본의 조선사정 소개지인 「民主朝鮮」(32호까지 간행됨)의 편집을 맡게 되었다. 한 때 반 실업상태의 작가생활을 유지하다가 「新日本文學」(1952. 1~1953. 11)에 연재한 장편소설 『현해탄(玄海灘)』⁸⁾(1954. 1 筑摩書房)을 발표한 이후 그는 전업 작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리얼리즘연구회」, 「문학예술회」, 「현대문학연구」 등에 소속되어 일관 되게 일제강점기 조선과 조선인의 현실묘사와 민족차별에 괴로워하는 제일조선인의 모습을 소재로 인간과 조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문학 활동은 정점을 이루어 1957년 「日本文化人會議」로부터 평화상까지 받았다.

소설 활동 외에 그는 일본 각지에 남아있는 조선의 옛 문화유적을 찾아 일본 전국을 여행하며 일본역사가 고대한국사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행문

7) 실제로 김달수는 영화관에 일할 때나 여자 친구와 사길 때 가나가와(神奈川) 신문사 시절에 「金光淳」이란 이름을 쓰고 「가네미쓰 준」으로 행세했다. 특히 그의 작품 「족보」에서 형 종태의 창씨개명한 성과 이름이 가네미쓰(金光) 쇼타이(宗泰)이다.

8) 제30회 아쿠타가와(芥川)상 후보에까지 오름.

을 발행하였다. 1975~1987년에는 계간지 『삼천리』의 편집위원을 지내며 활발히 문학 활동을 하다가 1997년 일본 도쿄 나카노(中野)의 자택에서 향년 79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문화체육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⁹⁾

김달수는 제일 조선출신 작가의 1세대 리더로서 조선의 자연과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선인 작가만이 느낄 수 있는 조선의 정서와 향수를 잘 표현하고 있다. 「죽보」는 어렸을 때 일찍 고향을 떠나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서도 일본인화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되찾아가려는 과정에서 ‘창씨개명’과 ‘죽보’라는 대립구도를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사소설형식으로 그리고 있는 단편소설이다. 특히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 김경태의 내성적인 성격에서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고국이 점점 친근해 지는 원근적인 묘사로 비록 나라는 빼앗겨서도 조선만이 가지는 따뜻한 문화의 동질성을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2.2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문학과 삶

가지야마(梶山)는 1930년 1월 2일 조선총독부의 전기기사로 일하는 유이치(勇一)와 일본계 하와이 이민 2세인 노부코(ノブコ)의 사이에 경성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36년 남대문소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소설에 관심이 많아 과학 모험소설을 쓰기도하였다. 1942년 경성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고향인 히로시마로 돌아가 히로시마二中(현広島観音高) 3학년에 편입하였고, 졸업 후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국어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재학 중에 지방 동인지인 ‘히로시마문학협회’를 만드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하였고 히로시마 펜클럽 설립 운영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1951년 졸업 후, 1953년 상경하여 요코하마의 쓰루미(鶴見)공업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다. 교사를 그만두고 다방을 경영하면서 『新早稲田文学』, 『희망』 등의 동인지와 무라카미 효에(村上兵衛)의 소개로 미우라 슈몬(三浦朱門) 등의 『新思潮』 제15차 동인이 되어 소설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58년에는 자유계약 기자로 『文芸春秋』, 『週刊新潮』 등에 기사를 썼다. 1959년 『週刊文春』을 창간할 때에는 자유계약 기자모임을 만들어 유명했다.¹⁰⁾ 이때 그는 가지 겐스케(梶謙介)라는 필명으로 小学館의 학생잡지 등에 많은 모험소설을 발표하였다. 그는 1958년부터 64년까지 라디오드라마의 각본을 주로 집필하였다. 1961년 결핵으로 약 3개월 입원 후, 이것을 계기로

9) 日本近代文学館(1977), 『日本近代文学大事典第一卷』, 講談社, p. 520참조.

10)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자동차회사의 치열한 경쟁을 배경으로 한 경제기업소설 『검은 시험자동차(黒の試走車)』가 독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그는 기업정보소설, 산업스파이소설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고 마침내 많은 베스트셀러 소설과 르포(reportage)로써 일본 고도성장기의 조류를 탄 유행작가로 성장하게 됐다.

그는 1969년 부인을 사장으로 季節社를 설립하여 1971년 문단, 매스컴계의 숨겨진 일화를 소개한 월간 『소문(噂)』을 자비 창간했지만 적자로 1974년 중단되었다. 1972년 그는 평소 앓아온 결핵이 재발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이즈(伊豆)의 별장에서 요양했다. 1975년 5월 7일 장편소설 『적란운(積亂雲)』의 취재를 위해 방문한 홍콩의 호텔에서 갑자기 토혈로 인해 급히 귀국한 후 5월 11일 아침 식도정맥류파열과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관에는 평소 그가 자주 먹던 술 산토리올드가 뿌려지고 피스담배, 원고용지, 몽블랑 만년필, 소설 『이조잔영』이 함께 넣어졌다고 한다.

그는 비교적 짧은 생을 보냈지만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생애 테마는 朝鮮, 移民, 原爆이었다. 그 중에서 「족보」, 「이조잔영」 등은 일제강점기 조선을 무대로 조선의 역사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가지야마의 「족보」는 1978년 임권택 감독 하명중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었고 그 해 대중상 우수작품상과 감독·남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한국의 대중에게 알려진 작품이다. 특히 가지야마의 「족보」는 일본인 작가로서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에 대해 비교적 비판적인 글쓰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인공 다니의 소극적인 행동과 개인의 한계성 그리고 족보의 상징성을 깊이 이해 못하고 내용의 줄거리가 에피소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3 「족보」의 상징성과 개작

김달수가 문학을 쓰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그는 식민지조선의 궁핍한 현실과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건너간 일본에서 피식민지인의 차별과 체험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가는 조선인의 불합리한 입장과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눈을 돌리게 된다. 즉 “식민지인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인의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일본인들의 그릇된 조선인 인식에 호소하여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함 이었다”¹¹⁾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는 제일조선 작가의 작품 속에서 조선적인 모습을 자주 그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11) 유숙자(2000), 「創作方法をめぐって」 金達壽, 『在日한국인 문화연구』, 月印, p.31재인용.

조선인 작가가 조선적인 것을 그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일본 인작가가 재일조선인 작가가 조선적인 것을 그린 것만큼 일본적인 것을 농후 하게 그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자명한 이치를 넘어 재일조선작가의 근원에 관계된 이유가 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 재일조선인의 일본 어작가가 조선적인 것의 형상화를 문학적인 리얼리티의 골격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소위 민족적인 것의 유지와 다시 탈취해야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결국 조선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복권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¹²⁾

이처럼 일제강점기 김달수와 같은 재일조선작가들의 의식에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문화를 다시 찾고 복원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질성이 함께 내포되어있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김달수 문학의 모티브를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조선의 해방과 독립에 불타는 군상을 그린 것. 둘째, 조선인 민중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것. 셋째, 억압되고 차별된 재일조선인의 저항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린 것. 넷째, 혼란된 오늘의 사회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¹³⁾

특히 김달수가 일제강점기 주로 습작으로 썼던 단편집은 작품의 구성과 내용면에서는 세련되지 못했고, 민족의 아픔으로까지 승화시키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작품에 대해 김달수는 해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작품을 개고하기에 이른다. 즉 그는 「족보(族譜)」(41,11), 「쓰레기(塵)」(42,3), 「잡초(雜草)」(42,7) 등의 3작품을 해방 이후 「민주조선」¹⁴⁾에 다시 개고 후 재발표하였다. 「족보(族譜)」는 동일한 제목으로 1948년부터 1949년 7월까지 9회로, 「쓰레기(塵)」는 47년 2월부터 「쓰레기선박후기(塵芥船後記)」로, 「잡초(雜草)」는 47년 6월 「잡초

12)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1979), 「在日朝鮮人文学の世界一負性を越える文学一」, 三千里 1979년 겨울호, p.27 (번역 필자 이하동)

13) 정대성(2000), 「8·15 前後 在日朝鮮人の 生活相과 民族意識-김달수 초기단편집의 유형 화와 梗概-」 p.115재인용

14) 1946년 4월에 창간하여 1950년 7월 폐간되었다. 『민주조선』은 당시에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없었던 교포작가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진보적인 일본문인과 문학적인 연대를 이루게 하였다. 또한 김사량, 이태준, 김남천 등의 작품을 소개하여 본국과 교포사회의 교류에 가교역할을 했다. 특히 『민주조선』 창간사에서 “과거 36년간의 오랜 시간 동안 왜곡된 조선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바르게 하고 조선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현인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처럼(雜草のごとく)』¹⁵⁾로 개명하여 개고하였다.

그 중에서 「족보(族譜)」는 그가 30년에 걸쳐 3번이나 개작한 작품으로, 김달수는 ‘족보’와 ‘창씨개명’에 관한 그의 관심이 일생의 테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판의 「족보(族譜)」(41,11)는 1940년 처음으로 약 12년 만에 돌아온 고향 방문과 짧은 조선사회의 체험을 기술한 자전적인 작품이다. 김달수가 직접 고향에 돌아와 22살이 되어서 비로소 처음으로 족보를 봤다는 그의 말에서 ‘족보’는 참으로 신기로운 것이었고 청년시절 일본에서 자란 본인에게는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한번 지금은 조선의 친척에 맡겨져 있는 자신의 족보를 본 적이 있지만, 우리 집의 것은 소위 대동보이고 두꺼운 28권의 목판으로 되어있어 정말로 놀랐다. (중략) 이것을 한 번 보기 위해서 목욕재계하고 향을 피우고 공손히 절을 하였다. 그것을 1940년 고향에 돌아간 우리 형제는 그대로 뒤적여 보기 때문에 ‘저런, 뭐하는 것이냐!’ 라고 족보를 보관하고 있던 나이 드신 숙부님을 통곡하게 했다.¹⁶⁾

이와 같은 사실에서 「족보」는 1940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형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평생 처음으로 족보의 존재를 보고 알게 된 주인공인 김정태를 통해서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부심이 존재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일본인화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발견과 즉 타자화 된 자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족보」의 발표연도가 1941년 11월임으로 보아 그가 일본으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쓴 것으로, 조선에서의 창씨개명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지야마의 『족보』는 창씨개명 상황이 비교적 자세히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해방 이후 쓴 작품이라는 점이다. 김달수는 이 소설을 쓸 당시 조선이 곧 해방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술했다. 그런 이유에는 「족보」의 마지막 부기에서 “작자는 이 원고를 끝내고, 제2부의 원고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제 2부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초판의 「족보」를 3번이나 아래와 같이 개작하는데 머물렀다.

15) 「민주조선」, 1947년 6월에 발표함, 주인공 현팔길과 고철상 나카무라(中村)가 조선보협인 서민회를 사주하여 그 권익을 빼앗으려하자 신문기자인 나(경태)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모면한다는 내용으로 전편과는 달리 고철상 나카무라와의 갈등과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대성,(2000), 앞의 책, p.116참조.

16) 김달수(1963), 『조선-민족·역사·문화-』, 岩波書店, p.10

<표 1> 「族譜」의 개작상황

순번	년도	題名	발행지	주인공명
1	1941	族譜	新芸術	金敬泰
2	1948	族譜	民主朝鮮	西敬泰
3	1979	落照 ¹⁷⁾	筑摩書房	西貴巖

이처럼 김달수의 「족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번 개작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朴正伊은 해방이 되자 ‘창씨개명’에 대한 작자에 대한 비난을 없애기 위해 일본에도 존재한 姓인 西(니시)를 사용하고자 金敬泰에서 西敬泰로, 내용에서도 ‘창씨개명’에 대해 주인공이 거부하는 장면으로 바꿨다. 「낙조」(1978)에서는 西貴巖의 역할이 약화되자 주인공과 대립관계의 고리대금업자이며 창씨개명을 독려한 皇民化 지도자인 李在守를 등장시켜 작품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 주인공을 백부 西貴巖으로 바꾸고, 이미지 또한 최익현의 문하생(1905)으로 의병항쟁(1910)에 참가하고 3.1운동에 투옥된 신간회 간부를 거쳐 광주학생운동(1929)에 투옥되고, 상해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유생이며 독립운동가로 형상화했다.¹⁸⁾ 김달수가 「족보」에 대해 집착한 이유는 조선인이면서 조선 문제에 대한 자기의 아이덴티티 문제가 조선의 상황 즉 해방, 한국동란 이후 남북한의 분단, 남북한의 정치상황 등 정치적인 사건과 연동하여 작자 자신이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작품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지야마 「족보」의 초판은 그가 1952년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재학중 『広島文学』에 처음 발표한 후 1961년 『文学界』에 가필되었다. 그가 소설 「족보」를 쓰게 된 동기는 주일대한민국대표부 공사였던 김용주가 『文芸春秋』(1950. 12월호)에 실린 ‘김용주공사, 크게 말하다’에서 가마타 사와이치로(鎌田沢一郎: 조선총독이었던 우가키 가르시게(宇垣一成)의 브레인)의 질문에 답한 인터뷰를 접하면서 부터이다. 가마타는 창씨개명과 관련된 비극으로, 전라북도의 설진영(薛鎭永)¹⁹⁾이 물에 빠져 자살한 사건에 관하여 손영목지사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진영은 어느 지방의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어서 족보를 대단히 귀하게 여겼다더군요. 그래서 성만은 아무래도 바꾸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설가(薛家)가 창씨를 하지 않으면 그 부근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개명을 하지 않는다

17) 「落照」는 1978년 『文芸展望』 夏季号에서는 「참봉의 최후(参奉の最後)」이었다.

18) 朴正伊(2004), 「金達寿三つの『族譜』をめぐって—その異同を中心に—」, 日語教育27輯, p.230

19) 설화의 본명은 설진영(薛鎭永)이나 가지야마는 소설의 스토리상 ‘마사키’라는 일본의 성과 같은 音読인 벽(薛)으로 바꿨다. 이름도 진영(鎭永)에서 진영(鎭英)으로 바꾼 데에는 창씨개명이 영일(英一)이 등장하여 같은 영(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게 문제였습니다. 설가가 중가이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지요. 관리들은 어떻게든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면서 누가 말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주의자도 아니었고 반일을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는커녕 그는 굉장한 친일파였습니다.²⁰⁾

가마타의 이와 같은 말을 유추해볼 때 가지야마는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에 크게 자극받아 「죽보」를 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죽보」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직업 등 구성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것을 볼 때, 이것을 힌트로 소설을 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의 부인인 가지야마 미나에(梶山美奈江)의 증언에 의하면 『문예춘추』에 실린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도쿄로 떠날 때에도 오려낸 기사를 품속에서 넣고 있었다고 한다. 사후, 그가 남긴 산더미 같은 자료 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이 기사가 발견되었다.²¹⁾

가지야마 「죽보」의 초출본과 최종본의 차이에 대해 구스 기요부미(楠井清文)는 주인공의 시점변화, 계절의 변경, 에피소드 증보 등을 지적하고, 이것들이 주인공의 죄책감이나 작품의 비극성이라는 테마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지야마의 「죽보」는 서울과 수원을 무대로 ‘창씨개명’에 의한 조선민중의 수난을 제재로 한 것이다. 화가 지망생인 주인공 다니 로쿠로(谷六郎)는 징용을 피하고자 경기도의 말단 관리로 들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창씨개명을 독려하는 담당을 맡게 된다. 그러나 자기 담당구역 안에 7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죽보를 간직한 지방의 유지인 벽진영은 매우 완고해서 창씨개명을 거절한다. 창씨개명을 한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라고 믿고 있어서 다니(谷)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단념하고 만다. 그러나 상사인 과장은 국가의 위신과 관련한 문제이니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를 창씨개명하게 만들라고 지시한다. 딸의 약혼자이며 창씨개명 한 가네다 호쿠만(金田北万)을 헌병대에 구속시키고, 고문시켜도 벽진영은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창씨개명을 반대했던 그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할 수없이 밤에 자살하게 된다. 벽진영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낀 다니는 과장에 대한 반항심으로 벽진영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그리고 3개월 후 영장을 받고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20)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정선태 옮김(2008), 『창씨개명』, 산치림, pp.244~245

21) 가지야마 미나에(梶山美奈江) 編(1998), 『積乱雲』, 季節社, p.385

3. 양 작품의 차이와 한계

3.1 조선작가와 일본작가의 인식 차이

김달수 「죽보」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경태의 민족정체성 변이는 조선을 떠나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피는 조선인이나 사고는 이미 일본인과 일본화 되었다. 따라서 12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경태는 식민지 조선의 모든 것이 낯설고 비문명적이었고 일본인의 삶에 비해 조선인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고향의 풍습과 자연 그리고 정든 사람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다시 조선인이라는 자각과 자부심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 가고 있다. 캐러멜의 상징성은 경태 자신이 과거의 배고픔에 아파했던 추억을 되돌려 주려는 작자의 배려가 잘 나타나 있다. 가난 때문에 전 식구를 데려가지 못하고 할머니와 경태 그리고 아픈 동생이 남아서 일본에서 부처준 작은 생활비로 생활하기에 동네 아줌마가 동생의 몫으로 하나 더 준 캐러멜을 자신이 먹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내지(일본)선물이라고 한집에 한 개씩 캐러멜을 나누어주었다. 복태의 병을 불쌍히 여긴 그 아내는 1개의 여분을 더 주었다. 형제는 그 캐러멜을 먹어 버리고 걱정스럽게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할머니에게 맛을 보여줄 수 없었다. 토하려고 목구멍에서 소리도 내보았다. 내지로부터 보내준 생활비가 부족한 할머니의 고생과 함께 캐러멜의 불효가 기억에 남아서 경태는 잊을 수가 없었다.²²⁾ (김달수 「죽보」 p.148 번역 : 필자 이하 동)

이와 같이 경태의 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던 고향은 걸모습은 옛 그대로이나 마을사람들의 의식은 이미 일본인화 되버린 조선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경태는 귀엄과 마주앉은 형을 봤다, 종태는 늦쇠 그릇 가득 쌓인 밥을 무거운 수저로 작게 떠서 먹고 있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맛이였다. 경태는 변한 슬픈 자신에게 향수를 느꼈다. 걸치레라도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찢찢매는 자신을 꾸짖으면서 젓가락을 움직였다. 무늬가 없는 늦쇠의 무거운 수저도 손에 집어 보았다.²³⁾ (김달수 「죽보」 p.158)

22) 内地土産だと言つて一軒に一粒づつのキャラメルを配つた。福泰の病氣を同情した妻君は一粒余計にくれたのだつた。兄弟はそのキャラメルを食べてしまつてハツと顔見合はせた。祖母に味をみせられなかつたのだつた。吐き出そうと咽喉を鳴らしても見た。内地からの仕送りの足りなかつた祖母の苦勞と共にキャラメルの不孝が記憶となつて敬泰は忘れることが出来なかつた。

23) 敬泰は貴嚴と差し向ひの兄を見た。宗泰は真鍮の器の飯の盛りを重い匙で、小さく崩して食べてみた。

이와 같이 조선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비쳐졌던 그에게도 점차 동질성을 찾아간다. 거리감이 있었던 숙부 귀염이를 이해하게 되고 점차 조선의 풍습과 습관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 몸에도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경태는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가지런히 했다. 몸속의 피가 갑자기 오싹오싹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옛 애정이 숙부를 향해 올라왔다.²⁴⁾ (김달수 「죽보」 p.169)

아침밥을 먹고 한 개피도 피지 않았던 담배를 꺼냈다. 하지만 입에 물자, 어딘가에서 조상이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리낌 했다. 경태는 입에서 담배를 집어 담배 갑에 다시 넣었다.²⁵⁾ (김달수 「죽보」 p.173)

경태는 상도를 흉내 내어 한쪽 무릎을 꿇고 풀베기를 시작했다. 예상외로 손놀림은 잊지 않았다. 조상의 묘를 자신이 깨끗하게 하고 있는 먼 감동이 점점 다가 왔다.²⁶⁾ (김달수 「죽보」 p.174)

의외로 경태는 조선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内地에서 열심히 외운 ‘고향을 떠나서’라는 조선의 15·6년 전의 유행가였다. 내 고향을 떠나서, 등 감상적인 오래된 유행가였지만, 경태에게는 이 노래를 조선어로 부를 경우 예술품이었다. 가타카나로 번역한 러시아인의 이름처럼 쪽지에 써서 외웠던 것이었다.²⁷⁾ (김달수 「죽보」 p.182)

경태가 다시 돌아온 고향은 어렸을 때의 향수를 느끼기에 충분한 터전이었다. 숙부에 대한 옛정, 조선에서의 담배예절, 조상의 묘에 대한 풀베기, 조선노래 부르기 등 한국적인 동질성의 회복이었다. 이와 같은 경태의 모습을 통해

なにもかもが勝手の解らない味だつた。敬泰は変つた悲しい自分に郷愁を感じた。見せかけにも少しは食べねばと、当惑の自分を叱りつけながら箸を運んだ。無地の真鍮の重い匙も手に執ってみた。

24) 敬泰は思はず膝を揃へた。体内の血液が俄にじんじん流れ締まるのを感じた。新らたな古い愛情が叔父に向つて突き起るのだつた。

25) 朝食が了つても一本も喫へなかつた煙草を取り出した。が、口にくわへて見ると、どこかで祖先が見てゐるやうな気がして憚られた。敬泰は口から煙草を取つて箱に戻した。

26) 敬泰は相度を真似て片膝をついて草を刈り始めた。案外手つきは忘れてはゐなかつた。祖先の墓を自身で清めてゐる遠い感動がだんだん追つてくるのだつた。

27) 意外に敬泰は朝鮮語の歌をうたい出した。それは彼が内地でいま一生懸命になつて覚えてゐる「故郷を後に」といふ朝鮮の十五、六年前の流行歌だつた。わが故郷に離別して、などと感傷的な古い流行歌だが、敬泰にはそれが朝鮮語でうたふ場合芸術品であつた。片仮名で翻譯のロシア人の名前のやうな紙切れに書いて覚えてゐたのだつた。

작자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키고 있다.

한편 가지야마 도시유키 「족보」의 주인공 다니는 상관의 부당한 창씨개명의 강요는 잘못된 정책이고, 일본국민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도아래 조선인과 평등이라는 것을 내세워 지금의 지원병제도를 징병제도로 바꾸어 태평양전쟁의 병사를 동원하기 위한 일체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간과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국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 즉 징병이며 징용이었다. 또 세금이며 공출이었다. 종래의 지원병제도를 한꺼번에 징병제도로 바꾸어 치기 위한 준비공작이었다……(그 증거로 곧 막대한 병사가 필요한 대동아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혔다. 과연 정치란 이런 것이구나 하였다.²⁸⁾ (가지야마 도시유키 「족보」 p.173)

그러나 다니의 이와 같은 생각은 행동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씨개명 정책을 찬성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자신의 징집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임에도 옳은 것으로 선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한다.

<이 남자가 정책의 암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벽진영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먹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동정은 금물. 살아야 되겠다는 내 목적을 위해서도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직무에 충실한 매정한 관리가 되라, 라고 마음속으로 외친다. 나는 맹점을 숨기려는 자세로 가슴을 펴고 벽진영의 약간 숙인 것 같은 옆얼굴을 노려보면서 <창씨개명은 너희들 조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은전이다>라고 주문같이 외여 본다.²⁹⁾ (가지야마 도시유키 「족보」 p.185)

“긴 것에는 감겨 주어라(권력 있는 자에게는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득이 된다)라는 일본격언을 아십니까?” 나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벽씨가 家名을 위해서라지만 이 마당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창씨개명을 하는 것으로 몸도 마음도

28) それは日本国民であるが故に、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つまり徴兵であり、徴用だったのである。また税金であり、供出であった。従来の志願兵制度を一気に徴用制度に切り換えるための、準備工作だったので……(その証拠に間もなく膨大な兵士を必要とする、大東亜戦争が起った)僕は、その事実を知って、啞然となった。なるほど、政治というのは、こんなものなんだなとも思った。

29) <この男が、政策の癌になっているのだ>僕は薛鎮英を、憎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決意する。赤の他人に同情は禁物。生きてゆくという俺の目的のためには、手段は選ばれないのだ、と心に振く。非情な職務に充実な官吏になれ、と心に叫ぶ。僕は盲点を蔽いかくす姿勢で胸を張り、薛鎮英のうつむき加減の横顔を睨みつけながら、<創氏改名は、貴様たち朝鮮人のためにつくられた恩典なんだ>と、呪文のように唱えてもみる。

일본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런 족보나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없애버리려고 이 정책이 세워졌다고 말 안할 수 없다.³⁰⁾ (가지야마 도시유키 「족보」 p.201)

일제가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것은 몸도 마음도 모두 일본화 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니는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다니의 태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실행하는 전형적인 일본인의 모습이였다. 더 나아가 자신도와 같은 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시대와 국가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음을 강변하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룬다.

“당신은 내가 귀신같은 인간으로 보이겠지요. 나도 뭐 좋아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그림마저 자유롭게 그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지금의 나는 좋은 그림이나 한 장 그리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됩니다.”³¹⁾ (가지야마 도시유키 「족보」 p.201)

개인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대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주인공 다니의 발상은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 초라한 한 개인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지야마 「족보」에 나오는 ‘족보’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묘사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족보에 일본인 성과 이름으로 창씨개명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들의 사고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특히 주인공 다니의 소극적이며 우유부단한 성격은 식민자의 한계이며 일본인의 한계임을 잘 표현한 캐릭터이기도 하다.

3.2 양 작가의 공통성(개인의 한계)

김달수 「족보」에서 김경태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였다. 자기 자신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으로 동화된 것처럼 이미 조선의 아동들도 자신과 똑 같이 동화되었을 때 개인으로서 느끼는 한계를 깨닫게 된다.

30) 「長いものには巻かれろ、という日本の諺を知っていますか？」僕は、創氏改名しない理由が、薛家の家名のためだということが、この場合には不利なのだと説明した。朝鮮総督府は、日本人をつくら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創氏改名することによって、身も心も、日本化できると考えている。ある意味では、そんな族譜だの、朝鮮人の民族意識を葬り去るために、この政策が立案されたと言えないこともない。

31) 「あなたは、僕が鬼のような人間に見えるでしょうね。なにも僕だって、こんな仕事はしたくないんですよ。しかし、絵だって自由にかけない時代なんです。……いまの僕は、立派な絵が一つ描きたいんだけど、とても駄目です」

멀리 조그마하게 주저 한 듯 발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애마행진곡 합창이 들려왔다. 경태 뒤에서 어린이들이 마주 보는 쪽에 서로 조를 짜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 부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경태를 의식해서 그들이 보여주었다. 아직 모두가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³²⁾ (김달수 「죽보」 p.160)

“4학년 이상은 한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한글을 사용하면 선생님에게 서로 일러바치게 되어있다.” 생콩을 먹고 있는 남자는 애마행진곡을 듣고 설명했다. 경태는 고개를 끄덕하고 앞의 중리산을 살짝 봤다. 묵묵히 소리 없이 치솟아 있었다. 이어서 어린이들의 합창은 점점 고성이 되어 애국행진곡으로 옮겨갔다.³³⁾ (김달수 「죽보」 p.160)

이미 조선의 시골 아동들까지 합창하며 부른 애마행진곡은 육군성이 군마를 애호하는 정신을 드높이고자 공모하여 선정된 군가로 1939년 1월 <국민가요> 제 40집으로 출판되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고향을 떠나 며칠 지났으나
함께 죽을 각오로 이 말을
공격하며 나아갔던 산과 강
잡은 말고삐에 피가 흐른다.³⁴⁾

군마를 전우로 취급함으로 말에 대한 애정과 친근함을 통해 전쟁의 공포를 서정적으로 치환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노래 보급이 약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1940년 이미 시골의 조선아동들이 이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아동들을 대상으로 황민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애국행진곡은 1937년 12월 12일 정부 공모선정 작곡 부분에 일등으로

32) 遠慮勝ちなためらひ勝ちな発音の不揃ひな、愛馬行進曲の合唱が聞えて来た。敬泰の後ろで子供たちが向ふ向きに組み合つた肩を揺らして歌つてゐるのだつた。それは明らかに敬泰を意識した彼等の見てくれたつた。未だ皆んなが皆んなとも小学校へ行つてゐるのではないだらうけれど、これは学校へ通つてゐるものの多いことを示してゐる。

33) 「四年生以上は朝鮮語を使はないことになつてゐるんだ。若し朝鮮語を使つたら先生にお互ひに云ひつけることになつてゐる。」生豆を食ふ男は愛馬行進曲を聞いて説明した。敬泰はうなづき、前の中里山をそつと見た。黙々と音もなく聳えたつてゐた。次いで子供たちの合唱はやや高声になり愛国行進曲に移つた。

34) 金田一春彦・安西愛子(1982), 『日本の唱歌(下)』, 講談社文庫, p.230
作詞: 久保井 信夫 作曲: 新城 正一

一
国を出てから幾月ぞ 共に死ぬ気でこの馬を
攻めて進んだ山や河 取つた手綱に血が通う

당선된 작품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전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노래이다.

봐라 동해의 하늘 밝게
 일장기 휘날리면
 천지의 정기 발랄함과
 희망이 넘치는 일본
 오오 청량한 아침 안개에
 우뚝 선 후지산의 모습이야 말로
 금구무결 흔들림 없이
 우리 일본의 자랑이다.³⁵⁾

이와 같은 노래뿐만 아니라 ‘창씨개명’ 정책을 장려하는 단체로 유명한 ‘애국반’이 이미 조선의 방방곡곡에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경태는 창씨개명이라는 대세 앞에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된다.

이갑득은 종태와 마을에서 소학교에 다니는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었다. 그가 마을에서 유일한 소학교를 졸업한 지식인으로서, 마을을 감독한 것은 경태가 있을 때부터이었다. 현재는 애국반의 반장이다. 편지나 관공서 일은 모두 그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부탁했다.³⁶⁾ (김달수 「족보」 p.162)

특히 1938년에 결성된 ‘國民精神總動員朝鮮連盟’은 황민화정책을 펼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부조직으로 ‘각도지방연맹’은 조선총독부 행정기구의 하나로 조직되었고, 기초조직은 10호를 표준으로 ‘애국반’이 만들어져 1939년에는 전인구가 참여하게 되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보급 등이 ‘애국반’을 통해 행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 민중은 ‘애국반’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씨개명’의 장려도 ‘애국반’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종태의 친구 이갑득이 애국반장으로 마을의 모든 일을 감독하고 창씨개명에 적극적 관여하는 장면이

35) 金田一春彦・安西愛子(1979), 『日本の唱歌(中)』, 講談社文庫, p.230

作詞：森川幸雄 作曲：瀬戸口藤吉

見よ東海の空あけて 旭日高く輝けば
 天地の正気澁刺と 希望は躍る大八洲
 おお晴朗の朝雲に 聳ゆる富士の姿こそ
 金甌無欠揺ぎなき わが日本の誇りなれ

36) 李甲得は宗泰と村で小学校に通つた二人の一人だつた。彼が村では唯一の小学校を卒業した知識人で、村を宰領してゐたのは敬泰のみるところからだつた。現在は愛国班の班長であつた。手紙や役場のことなど全て彼のところに持ち込まれた。

등장하는 것은 일제의 ‘창씨개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가지야마의 「족보」에서 주인공 다니는 ‘황국신민서사’를 ‘해괴망측한 주문’으로 비유하며 비판한다. 일제는 창씨개명의 설정기간이 가까워지자 아동들에게 한글을 사용하면 전쟁의 비협력자이고 반일주의자라고 하면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기에 이른다.

조선말을 사용하는 자는 전쟁비협력자이고 반일주의자이다. 황국신민은 모름지기 일본어를 상용해야 된다. ……그런 일방적인 생각에서 ‘황국신민서사’라는 해괴망측한 주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하나,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본인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아동용의 ‘황국신민서사’이다.³⁷⁾ (가지야마 도시유키 「족보」 p.218)

이처럼 일제는 ‘창씨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압박을 통한 학교교육으로 까지 진행하게 된다. 벽진영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다섯 손자들이 “창씨개명하지 않는 자는 일본인이 아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학교선생님이 말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벽진영)는 절망적인 처지에 빠진다. “철없는 애들이구나. 조부의 고집도 족보의 귀중함도 모른다.”고 한탄해 봤지만 이미 손자들의 등교거부라는 행동에는 그렇게 완고하던 벽진영도 어쩔 수가 없게 된다. 결국 그는 ‘창씨개명’을 실천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죄의식으로 죽음을 택하게 된다. 일제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생도를 통하여 호주(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창씨를 결단하도록 압박하였다.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 법무국과 지방법원의 ‘주지철저’ 활동계획에는 “생도를 통하여 가정에 철저”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³⁸⁾

이처럼 개인으로서도 당해낼 수 없는 한계가 사회의 분위기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행동이 기계의 일부본으로 정당화 되어가고 있다.

<나는 기계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부르짖는다. 이질적인 자기를 느낀다. 그러나 나도 수레의 이빨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

37) 朝鮮語を使う者は、戦争非協力者であり、反日主義者である。皇国臣民はすべからく、日本語を常用すべきである。……大体、そんな一方的な発想から、「皇国臣民の誓詞」という馬鹿馬鹿しい呪文が、つくられたのであった。「一ツ、私達ハ、大日本帝国ノ臣民デアリマス」「一ツ、私達ハ、心ヲ合ワセテ、天皇陛下ニ忠義ヲ尽シマス」「一ツ、私達ハ、御国ノ為ニ、立派ナ日本人ニナリマス」という文句は児童用の「皇国臣民ノ誓イ」である。 p.218

38)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정선태 옮김(2008), 앞의 책, pp.127~128

인가? 역시 나도 훌륭한 기계란 말인가?³⁹⁾ (가지야마 도시유키 「죽보」 p.217)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의감이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의 무력감에 빠져드는 다니의 자세에서 잘못된 정책이지만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엿볼 수 있다.

4. 창씨개명의 양상

김달수 「죽보」의 주인공 경태가 창씨개명에 대해 취한 태도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특히 김달수가 1940년 고국을 방문했을 당시는 창씨개명이 각 마을에 중요한 화두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민법>에 해당하는 <朝鮮民事令>을 제정하였다. 창씨에 대해서는 <朝鮮民事令>이 제정될 때부터 전혀 언급이 없다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朝鮮民事令>을 개정할 목적으로 1939년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朝鮮人ノ氏名ニ関スル件)>이 制令으로 공포되면서 조선인의 종래 성을 대신하여 새로운 성을 만들 것을 강제하였다. 조선에는 氏라는 제도가 원래 없기 때문에 각 가족의 호주에게 ‘씨명’을 새로이 창설하여 1940년 8월 10일까지 관청에 강제로 신고하게 했다. 이것은 조선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성씨를 버리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氏체도로 바뀐다는 뜻이다. 경태의 숙부인 귀엄이 가문의 자랑이라고 떠들었던 죽보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종태와 경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 경태와 종태는 자신의 성을 창씨로 바꾸고 죽보를 불태움으로서 이 작품을 끝마치고 있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개인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뇌가 내포되었지만 이 장면이 조선인 작자인 김달수에게는 앞에서 기술한바 같이 가장 치욕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김달수는 「죽보」를 37년이 지난 후 그의 나이 60 가까이 되서도 다시 개고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창씨개명에 관한 묘사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자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창씨를 했느냐? 요번 民事令의 개정으로 8월 10일 까지는 창씨를 하게끔 되었다.”李는 종태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39) <おれは、機械にはなれない>僕は、そう呟く。異質な自分を感じる。でも、僕も歯車の一つになっているのだった。こ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だろうか。矢張り僕も、立派な機械なのか。

종태는 내지에서는 몰랐지만 부산에서 신기해 경태가 사온 조선 신문에 창씨성적이 나와 있었다. 무슨 군 90 퍼센트, 무슨 군 100 퍼센트라고 주요기사의 하나가 되었다. 게다가 역이나 가두에는 밀항방지 포스터와 함께 한글로 창씨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등의 포스터를 볼 수 있었다.⁴⁰⁾ (김달수 「족보」 p.166)

“어떻습니까? 金光宗泰(가네미쓰 소타이)란 것은” 경태는 말하고 한순간, 어디로부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종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둑어둑한 방 천장에 호롱불이 크게 요동하고 있었다.⁴¹⁾ (김달수 「족보」 p.170)

당시 조선 신문에 구체적인 각 군의 퍼센트가 기사화 되었다는 것은 일제가 얼마나 창씨개명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 증거이다. 또한 일제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을 했다는 것이 허구라는 것은 종태의 초등학교 친구이며 애국 반장인 이갑득이 종태와 경태에게 창씨개명을 권하는 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창씨를 했느냐? 요번 民事令의 개정으로 8월 10일까지는 창씨를 하게끔 되었다.”고 일본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12년 만에 고향을 돌아온 종태 형제에게도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조선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어떠했을까 가히 짐작이 가고 남는다. 이와 같은 장면에서 김달수는 있는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본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다. 경태가 형의 창씨개명을 가네미쓰 소타이(金光宗泰)라고 외칠 때 천장의 호롱불이 흔들린 것 같은 요동이 있었다는 표현은 조상에 대한 미안함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지야마의 「족보」에서는 해방 이후 쓰진 작품이기에 당시 유명한 조선인의 이름과 직함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전북지사 손영목, 경북지사 김대우⁴²⁾ 등도 최후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벽진영 같이 민간인은 아니고 행정관청에 다

40) 「君たちはどうしたね。創氏(チヤンシ)をしたかね。今度民事令の改定で八月十日までに創氏(チヤンシ)をすることになった。」李は宗泰に誇らしく説明した。宗泰たちは内地では知らなかつたが、釜山で珍しがつて敬泰が買った朝鮮の新聞に創氏の成績が載つてゐた。何郡は九十パーセント何郡は百パーセントだとか、主要記事の一つになつてゐた。そして駅や街頭には密航防止のポスターと共に朝鮮仮名で創氏期限が迫りつつあるのだなど云ふポスターが見られる。

41) 「どうです。金光宗泰(カネミツシウタイ)といふのは。」敬泰は云つて一瞬、どこからの声か耳をそばだてた。宗泰は微動もしなかつた。薄暗い部屋の天井に灯灯が大きく揺れてゐた。

42) 김대우(金大羽)는 1900년 평안남도 강동에서 출생하여 1925년 구슈(九州)제국대학 공학과 졸업 후 바로 총독부 관리로 임명되었다. 1936년 총독부 학무국 교학과장으로 임명되어 1937년 ‘황국신민서사’를 기획하여 제정한 인물이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1943년 전라북도 도지사로 승진하였고 1945년에는 경북도지사에 임명되어 일제에 충성을 다하였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이다.

니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특례를 인정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그는 권력이 없는 민간이었다.⁴³⁾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족보」 p.216)

위의 예는 현재 일본에서 ‘창씨개명’에 대한 우익단체의 논리로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창씨개명’이 총독부의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졌다는 증거로 내세우며 조선총독부의 말단 하부조직에서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압이 행해졌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사 손영목, 경북지사 김대우는 창씨개명은 하지 않았으나 특례를 인정받은 인물이기에 이들의 특별한 예를 들어 조선에서 일제가 창씨개명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창씨개명’은 전술한바와 같이 ‘애국반’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장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제의 ‘창씨개명’에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로 1940년 7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편찬회보 제6집』의 「교과서의 가작(假作)인물의 氏名에 대해서-창씨개명으로 인한 수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롭게 교과서를 편찬할 때에는 기존의 책에도 등장하는 假作인물의 氏名은 모두 새로운 제도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발행 발매 분 및 금년도 후반기의 것이라도, 이미 인쇄가 끝난 것까지 정정할 수가 없어서 이번 회보를 이용하여 알린다. 이에 따라 즉시 정정하여 앞으로 취급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표 2> 교과서 假作인물의 씨명 개명표⁴⁴⁾

초등수신		초등산술	
旧名	改名	旧名	改名
尹龍吉(いんりうきち)	谷龍吉(たにりうきち)	金昌大	金子新吉
李誠一	森誠一(もりせいいち)	朴大植	水原(ミズハラ)
		安	安川
		金	金川
		朴	木下
		李	中村
		張	吉田ヨシダ
		李成基	中村
		安貞子	安川貞子
		安英子サン	林英子(ヒデコ)サン
		朴君	森君
		安君	原君
		閔君ビン	岡君

43) 全北知事孫永穆、慶北知事の金大羽なども、最後まで創氏改名をしなかった人達である。でも、それらの人たちは、薛鎮英のように民間人ではなく、行政官庁に勤めていたため、巧みに特例を認めさせたにすぎない。不幸なことに、彼は権力のない民間人であったのだ。

44) 조선총독부(1940), 「교과서편찬회보 제6집」의 「교과서의 가작인물의 씨명에 대해서-창씨개명으로 인한 수정-」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40년도 2학기에 발행할 교과서부터는 조선의 성과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조선아동의 성과 이름은 모두 일본식으로 바뀌었다. 『초등국어독본』에서는 씨명이 함께 나온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이름은 구교과서의 에이시 상(エイシサン)이 하나코 상(ハナコサン)으로 음독에서 훈독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제는 ‘창씨개명’의 적극적인 실천을 학교교육과 교과서를 통해 정착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1940년대 ‘창씨개명’이 한창일 때 김달수는 22살의 청년으로 가지야마는 13살의 초등학교 5학년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김달수는 경남창원, 가지야마는 경성과 수원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족보」를 작품으로 형상화 한다. 두 작품의 공통적인 소재인 ‘족보’와 ‘창씨개명’이라는 대립적인 주제를 통하여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평가는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김달수의 「족보」가 정치적인 배경을 삭제한 채, 가능한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주인공 김경태의 눈에 비친 조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 ‘창씨개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조선의 상징인 ‘족보’가 사라지게 되는 아쉬움이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지야마의 「족보」는 비록 해방 이후 일제의 과거사문제에 대해 일본이 비교적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때고 직접체험이 아닌 신문이나 전언을 참고하여 쓴 작품이어서 정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주인공 다니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국가를 대신하여 개인이 속죄하는 장면에서 일본적인 느낌이 든다. 특히 이 작품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쓴 작품이어서 김달수의 「족보」와는 달리 마지막에 족보를 경성제국대학에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표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장면이다.

이에 반해 김달수의 「족보」는 12년 만에 찾아온 고향의 모습을 통해 조선에서도 일제의 황국신민화가 진행해가는 현장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써 개인으로서 거대한 물결에 저항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족보’로 형상화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번이나 개작을 했다는 사실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작자의 관심과 在日작가로서의 고뇌를 함께 읽을 수 있다.

【参考文献】

-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1963), 『李朝殘影』「族譜」, 文芸春秋新社, p.163
- 가지야마 미나에(梶山美奈江) 編(1998), 『積乱雲』, 季節社, p.385
- 긴다 이치하루히코(金田一春彦)·안자이 아이코(安西愛子)(1982), 『日本の唱歌(上)(下)』, 講談社文庫, p.230
- 김달수(1963), 『조선-민족·역사·문화-』, 岩波書店, p.10
- 남부진(2006), 「文学の植民地主義」, 世界思想社, p.194
-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정선태 옮김(2008), 『창씨개명』, 산치럼, pp.244~245
- 朴正伊(2004), 「金達壽三つの『族譜』をめぐって—その異同を中心に」, 日語教育27輯, p.230
-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1979), 「在日朝鮮人文学の世界—負性を越える文学—」, 三千里 1979년 겨울호, p.27
- 이원희(2007),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와 조선」, 일본어문학회 제38집 2007. 8, pp.405~422
- 日本近代文学館(1977), 『日本近代文学大事典第一巻』, 講談社, p.520참조
- 유숙자(2000), 「創作方法をめぐって」金達壽, 『在日 한국인 문화연구』, 月印, p.31재인용
- 조선총독부(1940), 『교과서편찬회보 제6집』의 「교과서의 가작인물의 씨명에 대해서-창씨개명으로 인한 수정-」
- 정대성(2000), 「8·15 前後 在日朝鮮人の 生活相과 民族意識-김달수 초기 단편들의 유형화와 梗概-」 재인용

要 旨

本稿は、在日朝鮮作家である金達寿の小説「族譜」と、朝鮮で生まれて幼年時代を過ごした日本作家である梶山季之の小説「族譜」の間に、どんな差が存在するのか、また日帝強占期末日帝の‘創氏改名’がどういう形で展開されている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1940年日帝は、朝鮮人をすっかり日本人で同化させようと‘創氏改名’を強要した。このような時代相を金達寿は22歳の青年で故郷の昌原で、梶山は13歳の小学校5年生で京城で目撃しながら経験したことを小説「族譜」で形象化した。この二つの作品の共通的な素材である‘族譜’と‘創氏改名’という対立的な主題を通じて、植民地朝鮮の惨澹たる現実を表現したという事実だけでも、高く評価すべきだといえよう。しかし、二つの作品の大した違いは、金達寿の「族譜」は政治的な背景を削除したまま可能な率直でリアルに描き出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主人公金敬泰の目に映った祖国の惨澹たる現実の前に、‘創氏改名’という渦巻きに朝鮮の象徴である‘族譜’が消えゆくようになる惜しさが、作品の中に内在していると言える。

一方、梶山の「族譜」は自分の直接体験ではない新聞や伝言を参考して書いた作品なので、政治的な傾向が強く作用して現われているといえよう。主人公谷の消極的な行動に対する責任を国家の代わりにして個人が償う場面で、日本的な感じがする。特に、この作品は結果をもう決めておいて書いた作品なので、金達寿の「族譜」とちがって終わりに‘族譜’を京城帝国大学に寄贈することで仕上げる場面は、一番政治的な表現の絶頂を見せてくれている。

特に、両作家の共通的な‘族譜’という題名に決めたところには、‘創氏改名’に対する反対の概念で把握している。一番、朝鮮的な伝統である‘族譜’と日本人で同化の象徴である創氏は、ついに、抵抗しても創氏改名するしかない現実認識で始まる。にもかかわらず、在日朝鮮作家と日本人作家が、この族譜の問題を作品で形象化したことは、昨今の日本政府の‘創氏改名’に対する誤った主張を正しく直すようにいい機会だ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族譜、 創氏改名、 朝鮮総督府、 金達寿、 梶山季之、 同化主義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